스위스 윈터 스토리.

지역명사를 활용한 관광지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있는 지역명사가 소개하는 겨울 관광지
관광스토리텔링, 스위스에서도 감성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관광 마케팅 기법
특별한 인물이 가진 스토리를 통해 겨울 관광을 소개하다
평창올림픽 동영상으로 스타된 프리라이더
대단한 호텔 가문 손자가 운영하는 스키장 한복판 호텔
전설이 살아 숨쉬는 스키장을 관리하는 아버지와 아들
한 시즌에 1 만개의 버거 판매하는 농부의 오두막 레스토랑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8 년, '다시, 자연의 품으로(Back to Nature)'라는 테마에 맞게 스위스 자연의 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며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 700 가지 이상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모든 체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지역 토박이들의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나라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지나 특산품, 향토 음식을 소개하는 데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관광 상품의 차별화 및 가치 발견을 위해 스토리를 가미함으로써 상품 자체 보다도, 감동이 있는 개인적인 연관성을 부여함으로써 더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스토리텔링은 관광지의 자원, 지역주민, 관광객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가치체험으로 생태관광이나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도 감성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관광 마케팅 기법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인적 자원(휴먼웨어)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고자 하는 노력이 특히 돋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의 역사와 삶을 함께한 명사를 고품격 이야기꾼으로 발굴 및 육성해 명사의 생생한 '인상담'과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지역의 여행상품을 고급화 하기 위한 '지역명사 문화여행 프로그램'을 곳곳에서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스위스에서는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맞아, 스위스 각지의 명사를 주인공으로 한 윈터 스토리를 개발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체험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스위스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 스노우 스포츠를 다채로운 방법으로 만나볼 수 있다.

1. 세 가지 세상의 스타 I 엥겔베르그(Engelber)
탐험가이자 돌아온 탕아, 결의롭지만 자유를 사랑하는, 괴짜같지만 조용한 사람이 한 명있다. 바로, 파비안 뵈쉬(Fabian Bösch)다. 중앙 스위스의 프리스타일 스타기도 하다.

눈이 내린 고향에서 그는 평온해 진다. 그가 얻은 성공의 근원은 바로, 스노우 스포츠에 대한 열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관 밖으로 다채로운 코스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럽에서 가장 방대한 스키장 중 하나가 펼쳐져 있는 숙명을 타고난 그다.

뵈쉬는 한 시즌에 네 개에서 다섯 개의 대륙을 연달아 찾으며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형 스키 지역을 찾아 다닌다. 하지만 그의 고향, 엥겔베르그(Engelberg)를 별나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고향 친구들이다.
“집에 들를 기회가 생기면 미리 친구들과 함께 하는 스키 여행을 계획해 두죠.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죠.”라고 파비안은 말한다.

하루는 스키 피스트 위에서, 다음 날은 오프 피스트로 시간을 보내는 그다. 뵈쉬와 그의 친구들은 피스트를 따라 질주한다. 물론 공중 회전도 하고, 오프 피스트로 내려가기도 한다. 날씨에 따라 다른 얘기지만 말이다. 아이들처럼 눈 위에서 신나게 움직이며 전문 프리스키어다운 묘기를 부리며 속도감 있게 활강한다.

아무래도 공기 때문일거란다.
파비안 뵈쉬는 순식간에 점프 묘기를 성공해낸다. 엥겔베르그 스키 클럽 회원이 되어 이 기술을 연마하는데 수년이 걸렸다. 레이싱 룰을 따르는 것보다 묘기를 부리는 것에 더 심취했던 그는, “공중 회전을 하는 게 그냥 더 훨씬 재미있더라구요.”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프리스타일로 종목을 바꾸었다.

“엥겔베르그는 굉장히 도전적인 스키장이죠. 그래서 이 곳의 코스를 좋아합니다.”
평범하기를 거부하는 그는 참 별나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에도 다른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는 동안 한쪽 팔로 에스컬레이터 레일에 매달려 올랐던 그다. 파비안 뵈쉬는 그의 인상적인 성과들로 인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지만, 이 평창 에스컬레이터 영상물 하나로 전 세계에 유명해졌다. ‘20 년이나 봤지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타는 거에요?’라고 적어 웃음을 자아내는 영상물이다.
https://www.facebook.com/buhsch/videos/after-20-years-i-still-couldnt-figure-out-how-this-thing-works-am-i-doing-it-rig/2132903500271766/

“스포츠에서의 성공이 선수로서의 성공보다 더 의미있습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스스로를 마케팅하는 것은 전반적인 경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죠.”라고 다부지게 말하는 그다.

겨울 스포츠의 천국 엥겔베르그는 2,000m 나 되는 고도차를 선사한다. 프리라이딩에 적합한 지형과 아프레스키(après-ski)에 강한 스키장이기도 하다. “엥겔베르그는 전 세계 최고의 스키장과 견주어도 뒤쳐질 것이 없는 곳이죠.”라고 자부심있게 말한다.

겨울이 7 개월이나 계속되는 엥겔베르그는 그에게 천국같은 고향이다. 10 월부터 5 월까지 계속되는 겨울 시즌 동안 총 합산 길이 82km 의 스키 피스트들 중에는 최장 12km 의 피스트도 있다. 그 외에도 총 합산 길이 49km 의 겨울 하이킹 트레일이 얽혀 있고, 총 합산 길이 35km 에 달하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 트레일도 뻗어나 있다.

2. 로케이션의 문제 I 크랑 몬타나(Crans-Montana)
호텔 셋쯔롱(Hotel Chetzeron)은 어떤 이에게는 소원을 빌 수 있는 좋은 기가 흐르는 파워 스팟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미식 천국이다. 윈터 스포츠 마니아들에게는 완벽한 스키인 스키 아웃(Ski-in Ski-out) 호텔이기도 하다. 크랑 몬타나에 있는 산 위에 위치한 호텔로, 스키 리조트 한 가운데에 자리해 있어 일상을 벗어나기에 이상적인 장소다. 로케이션 자체가 진정한 럭셔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키인 스키 아웃 호텔. 호텔 문을 나서면 바로 스키장이 펼쳐져 호텔부터 스키를 신고 나갈 수 있는 호텔을 칭하는 말이다. 침대에서 일어나 바로 스키 피스트로 향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로컬들과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높은데, 슬로프와 케이블카가 가깝고, 스키 피스트 바로 옆에서 독특한 겨울 체험을 할 수 있어서다.

우 마터호른(Matterhorn), 좌 몽블랑(Mont Blanc). 말 그대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마터호른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프랑스의 몽블랑이 한 눈에 들어오는 명당자리다.

여기에 열정적인 호텔리어 한 명이 있다. 사미 라마(Sami Lamaa)는 호텔에서 태어난 사나이고, 한 번도 제대로 체크 아웃을 한 적이 없다. 외할아버지는 발레(Valais) 주의 전설적인 호텔, 세자르 리츠(César Ritz)에서 일하셨던 분으고, 친할아버지는 베이루트(Beirut)에서 본인 소우의 호텔을 운영했던 분이다. 사미 라마는 호텔 업계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스위스 최고의 스키인 스키아웃 호텔 중 하나로 꼽히는 셋쯔롱에 무척이나 열정적이다. 크랑 몬타나의 해발고도 2,112m 에 웅장하게 서 있고, 스키 피스트까지는 채 10m 가 되지 않는다.

대단한 풍경은 주어지는 것이다.
“창 밖을 한 번 내다 보세요.” 사미 라마는 말한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펼쳐진 마터호른과 왼쪽으로 펼쳐진 몽블랑을 바라 보세요.” 그 사이로 스노우 스포츠 마니아, 겨울 여행자, 미식가들이 열광하는 풍경이 펼쳐져 있다. 무엇이 셋쯔롱을 그렇게 환상적인 장소로 만들어 주는지 묻자, 라마는 세 가지를 꼽았다.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이 호텔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체험이다. 낮에는 걷거나 스키, 스노우보드로 크리데르(Cry d’Er)부터 옛 크랑 셋쯔롱(Crans-Chetzeron) 케이블카 역까지 내려갈 수 있다. 밤에는 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두 대의 설상차로 투숙객들에게 셔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 케이블카 역에서 호텔이 되기까지 그 자체가 역사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 이 곳 스키장 레스토랑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부호들에게 사랑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시한 스낵바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그리고 2001 년 케이블카 운행이 중지되자, 이 볼썽사나운 콩크리트 건물을 철거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사미 라마는 그 잠재력을 보았고 그 기회에 뛰어 들었다. 2008 년, 그는 미식 레스토랑을 열었고, 이어 2015 년에 호텔을 열게 되었다.

스위스에는 슬로프 접근성이 뛰어난 호텔이 많다. 하지만 그 중 셋쯔롱만큼 특별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아침 식사 후 바로 스키를 타러 나선다면, 크랑 몬타나 주변의 가장 아름다운 다운힐 런을 혼자서 독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셋쯔롱의 스태프들 역시 하루의 업무가 끝나면 매일 밤 스키장을 독차지한다. 그게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둠을 헤치고 스키를 타고 내려가야 한다. 눈발이 심하게 날린다거나 폭풍이 이는 날이 아니라면, 이는 진정 마법같은 체험이라고 직원들은 말한다. 많은 투숙객들이 부러워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스위스에는 총 250 개의 스키장이 있고, 표지판이 설치된 공식 슬로프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7,000km 가 넘는다. 이 거리는 대략 베른(Bern)부터 뉴 델리(New Delhi)까지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3. 전설이 숨쉬는 코르빌리아(Corviglia) I 생모리츠(St. Moritz)
이 시크한 겨울 스포츠 리조트는 태곳적부터 트렌드셋터가 되어 왔다. 최초의 봅슬레이, 최초의 스키스쿨, 최초의 컬링 클럽. 두 번의 동계 올림픽과 다섯 번의 스키 월드 챔피언쉽을 개최한 곳이다. 그 한 복판에 장관을 이루는 코르빌리아 레이싱 슬로프가 있다.

분노의 질주가 시작된다. 이 곳의 자유 낙하가 스키 레이싱 슬로프 중 가장 가파른 스타팅 램프다. 마크 베르토드(Marc Berthod)가 2014 년, 단 6 초만에 시속 0 에서 시속 140km 로 가속을 내며 세상에 이름을 알린 곳이기도 하다.

“출발점 앞에 똑바로 설 때, 깨닫게 되죠. 와, 거의 수직이구만.”하고 마크 베르토드가 말한다.

그에게는 이 곳이 홈그라운드다. 생모리츠 토박이인 그는 이 슬로프에 얽힌 추억이 많다.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아버지, 마틴 베르토드(Martin Berthod)는 1981 년부터 생모리츠에서 스키 레이싱에 매진해 왔다. 그 시기에 아버지는 의외의 문제를 극복해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례적인 기운의 문제였다.

이상한 기운이 13 번 기둥에서 감지된 것이다.
“원래 저는 미신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하고 마틴 베르토드는 말을 이어간다. 레이스 매니저였던 그는 불안했다. “13 번 기둥 근처에 나쁜 기운이 흐른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평생 이 말을 잇지 못할 거에요.”

다른 스태프들이 걱정할까봐 레이스 매니저로 일할 당시 그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제서야 비밀을 발설하는 그다. 이상한 일들이 13 번 기둥 근처에서 자꾸 벌어졌다.

아찔했던 순간과 끝나지 않는 비행이었다. 오스트리아인 미카엘레 도르프마이스터(Michaela Dorfmeister)는 2006 년 시속 100km 로 활강하다 스키장 직원과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다. 커뮤니케이션 설비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마틴 베르토드는 2017 년, 월드컵 스타 베아트 포이츠(Beat Feuz)가 스키로 질주하는 광경을 지켜 보던 중 약 90m 정도를 날아갔던 순간을 떠올린다. “상상조차 하기 싫죠. 차기 월드 챔피언이 여기에서 부상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마틴 베르토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와 그의 아들은 다시 한 번 베아트 포이츠가 얼마나 멀리 날았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그는 베아트 포이츠가 착륙한 지점으로 아들을 서둘러 보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이 기분 나쁜 기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상쾌한 공기를 깊숙이 들어 마신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그의 동력은 멈추지 않는다. 마틴 베르토드는 알파인 스키 월드컵 조직 위원회의 회장도 겸하고 있다. 64 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부터 몇 년 내에 생모리츠 알파인 스키 월드컵 조직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팀을 만들기 위해 지인들과 힘을 모으고 싶거든요.”

월드컵은 월드 챔피언쉽으로 이어진다. 생모리츠는 국제적으로 스키 레이스 행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서 고향의 젊은이들이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의 꿈이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생모리츠에는 88 개의 스키 피스트가 조성되어 있고, 58 개의 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다. 겨울 하이킹 트레일을 합산한 총 길이는 150km 에 달하며, 크로스 컨트리 스키 트레일을 합산한 총 길이는 230km 에 달한다.

4. 쇠스랑에서 산속 오두막 커피까지 I 아델보덴(Adelboden)
스키 피스트에 시골스런 바 하나가 눈에 띈다. 스키장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편안히 쉬어갈 매력적인 장소를 찾고 있다면, 추미휘테(Chumihütte)다 제격이다. 농부이자 오두막지기인 한수엘리 하리(Hansueli Hari)는 느긋한 분위기로 손님들을 맞이한다.

오버란트(Oberland)에서 즐겨 보는 돌체 비타 시간이다. 쿵쾅대는 음악? 감자 튀김? 셀프 서비스? 있을 수 었는 일이다! 편안함과 서비스가 추미휘테의 상징이다. 테라스 석은 세월이 녹아든 가구와 옛스런 소파로 손님들을 맞이한다. 자연 속에 독특하게 꾸며진 테라스는 전체적인 조화를 아름답게 이끌어 내고 있다. 이 곳을 잠깐 들를 생각조차 안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실수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쉬었다 가자. 추미휘테를 찾아본 이라면 다른 오두막은 절대 쳐다 보지도 않을 테다. 손 글씨가 멋드러진 슬레이트 보드와 친절한 스탭들, 히트 메뉴 때문이다. 자켓 포테이토를 곁들인 하이랜드 버거가 시그니쳐 메뉴인데, 아델보덴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췬니스배르글리(Chuenisbärgli) 슬로프에서의 하루 만큼이나 특별하다. 이 러스틱한 오두막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 테라스에 앉기가 꺼려질 때 실내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70 석 마련되어 있다. 겨울 철 저녁이면 퐁뒤 디너가 마련되고 여름이면 알프스 풀을 뜯던 소들이 쾌적한 환경을 찾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안락함 만한 것이 없다. 추미휘테의 느긋한 분위기는 어쩌다 탄생한 것이 아니다. 오두막지기이자 농부인 한수엘리는 이 속도로 농장일도 한다. 알람 시계도 필요 없는 그는 날이 밝자마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람 중 하나다. 젖소에서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소로 품종을 변경한 뒤, 그는 젖을 짜기 위해 새벽마다 일어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그가 외양간 코너를 돌자마자 소떼들은 음메 소리로 그를 반긴다.

한수엘리는 어디 있는 걸까? 놀라우리만큼 진기하고 길들이기가 좋은 외국 종자인 소떼가 있는 한수엘리의 농장에는 다채로운 빛깔의 하이랜드 소가 있다. 검정, 황토, 하양, 붉은, 잿빛의 색깔과 상관 없이 이들의 거대한 뿔은 인상적인 생김새를 만들어 준다. 1.4m 길이의 소들은 항상 존중 받는다. 한수엘리는 이들을 칭찬하느라 여념이 없다. “생김새 때문에 존중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유순하고 고분고분한 성품을 가졌죠.”

사랑스런 털북숭이 소들이다. “이 아이들은 알프스에서 석달이나 지내죠.” 아델보덴의 초목지대와 지형은 이 튼튼한 소들에게 완벽하다. 지금까지 세 번의 여름을 알프스에 올라가 났고, 매해 가을마다 농가로 내려왔다. 이 털북숭이 소들이 초록 들판에서 유유자적하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에 하이커들은 깜짝 놀란다.

한수엘리도 마음을 비워야 할 때가 있다. 소들을 먹이고 나면, 한수엘리는 차나 스노우바이크로 추미휘테를 찾는다. 짬이 날 때마다 스키를 타는 그다. 가능하면 체어 리프트가 운영하기 전 시간을 선호한다. 평화로움과 그 순간을 만끽하며 슬로프 하나를 독차지 하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춤니휘떼의 퀄리티가 그의 성공의 열쇠다. 맛깔난 버거 외에도 오두막 팀은 토스트 위에 추미 치즈를 올려내거나, 다양한 콜드 컷 플래터, 맛깔난 메링게를 선보인다. 그가 한 시즌에 판매하는 버거만 해도 만 개에 이른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